

형통한 노예생활

노예 요셉을 보디발이 구입했다. 보디발은 애굽의 최고권력자 파라오를 보호하는 친위대장이었다. 그가 요셉을 산 것은 아주 잘 한 일이었다. 요셉에게는 다른 노예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고 보디발은 그 특별함을 여러 번 보았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 창세기 39:3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본 것은 '신의 동행과 보호'였다. 이집트는 태양신을 비롯해서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다.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볼 때 '여호와'는 가나안 출신 노예가 믿는 가나안의 여러 신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노예가 믿는 신은 노예를 돕지 못한다. 일을 시키고 채찍을 휘두르며 식량을 주어 연명하게 하는 것은 노예가 믿는 신이 아니라 주인이었다. 당연히 주인이 믿는 이집트의 신이 더 우월하고 노예의 믿음은 헛된 것이었다. 그러나 요셉이 믿는 '여호와'는 달랐다. 한 두번 일이 잘 풀렸다고 확인될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요셉과 함께 하며 모든 일을 형통케 함을 보고 또 보았다. 요셉의 범상치 않음을 확인한 보디발은 모든 소유물의 관리를 맡긴다. 보디발의 안목은 탁월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고 보디발은 더 부유해졌다. 그가 요셉에게 맡기지 않은 유일한 것은 자신의 먹는 음식이었다. 일체의 재산 관리를 맡기고 먹는 문제까지 맡기면 누가 주인인지 알수 없으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 창세기 39:7

항상 '그 후에'가 문제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기까지 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을 요구한다. 주인의 여인과 간음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범죄였다. 이것이 요셉의 생각이었고 주인의 아내가 간음을 원할 때 마다 요셉은 자리를 피했다.(아버지의 여인과 간음했던 르우벤, 창기를 만난 유다와 비교된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 창세기 39:11-12

오래 가지 않아 사건이 벌어졌다. 일을 하러 들어간 집에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왜?) 주인의 아내만 혼자 있었다.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는 여인을 뿌리치지 못한 요셉이 차라리 옷을 버리고 집 밖으로 도망친다. 남겨둔 옷이 화근이었다. 여인은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했다 남편에게 말했고 단 한 사람의 증인, 공식적인 재판 없이 요셉은 감옥에 갇힌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 창세기 39:20-21

보디발이 요셉을 가둔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위한 감옥이었다. 일반 범죄자와는 다른 귀족이나 관원들이 갇히는 곳이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다. 노예 요셉은 친위대장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실패한 배은망덕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멈추지 않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처럼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 모든 일을 맡았듯이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맡게 된다. 수감된 죄수가 간수를 대신해서 감옥을 관리하게 된 것이다. 보디발이 본 것을 간수장도 보았기 때문이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 창세기 39:23

요셉에게서 벗겨지지 않은 것

요셉의 옷은 두 번 벗겨졌다. 야곱이 입혀준 채색옷은 형제들에 의해서 벗겨졌고 애굽에서 입혀진 노예의 옷은 여주인에 의해서 벗겨졌다. 옷이 벗겨질 때 마다 요셉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채색옷이 벗겨지며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의 옷이 벗겨지며 감옥에 갇혔다.

요셉이 입은 옷은 누군가 입혀준 것이었다. 채색옷은 아버지가, 노예의 옷은 보디발이 준 것이었다. 그가 입은 옷은 그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었다. 채색옷은 아버지의 각별한 총애를 받는 아들임을 말해주었고 노예의 옷은 그가 천한 신분임을 말해주었다.

누군가 입혀준 옷이 벗겨질 때 마다 그 누군가가 규정한 요셉의 정체성이 깨어졌다.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다. 요셉은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이 벗겨져도 요셉에게서 결코 벗겨낼 수 없는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였다. 채색옷이 벗겨져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의 옷이 벗겨져 죄수가 되었을 때. 여호와와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있었다 .

지금 당신에게서 벗겨낼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요셉에게서 벗겨 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 스스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스스로 입은 것, 누군가 우리에게 입혀준 것은 쉽게 벗겨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는 누구도 벗겨낼 수 없다.